

일본어 회화문에 나타난 축약형의 음운론적 해석과 음향음성학적 분석

Acoustical Analysis of Phonological Reduction in Conversational Japanese

최 영 숙*
Young-Sook Choi

ABSTRACT

Using eighteen texts from various genera of present-day Japanese, I collected phonologically reduced forms frequently observed in conversational Japanese, and classified them in search of a unified explanation of phonological phenomena. I found 7,516 cases of reduced forms which I divided into 43 categories according to the types of phonological changes they have undergone.

The general tendencies are that deletion and fusion of a phoneme or an entire syllable takes place frequently, resulting in the decrease in the number of syllables. From a morphosyntactic point of view, phonological reduction often occurs at the NP and VP morpheme boundaries.

The following findings are drawn from phonetical observations of reduction. (1) Vowels are more easily deleted than consonants. (2) Bilabials ([m], [b], and [w]) are the most likely candidates for deletion. (3) In a concatenation of vowels, closed vowels are absorbed into open vowels, or two adjacent vowels come to create another vowel, in which case reconstruction of the original sequence is not always predictable. (4) Alveolars are palatalized under the influence of front vowels. (5) Regressive assimilation takes place in a syllable starting with [r], changing the entire syllable into a phonological choked sound or a syllabic nasal, depending on the voicing of the following phoneme.

Keywords: Phonological Reduction, Morpheme Boundaries, Bilabial, Alveolar, Regressive Assimilation

1. 서론

축약형은 일상생활의 회화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우리가 말을 할 때 되도록 최소의 노력을 들이려는 발음의 간소화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말뜻을 이해하는데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음소는 탈락되어 발음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 그건’, ‘간편하게 → 간편케’, ‘아니야 → 아냐’ 등의 준말이 나타나는 것처럼 일본어에도 이와 같은 축약형이 나타난다. 일본어 학습자가 음운의 축약 및 복원을 위해서는 축약현상의 음운규칙에 관한 습득이

* 한국교원대학교 중등교원양성소

필수 불가결하다.

축약형이란 인접해 있는 두 음절 사이의 음이 탈락되거나 중간음으로 변화해서 1음절로 융합된 것 혹은 몇 단계의 융합을 거친 결과 생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축약이란 이웃하는 음소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일어나는 현상으로서 의미의 변화 없이 1음소 이상이 자연스럽게 탈락 또는 융합된 복원 가능한 언어형식을 말한다(岸田 1984, 日本語音聲學會 1976).

축약형에 관한 선행연구를 보면, 축약형의 예만을 조사한 정도의 기술이 대부분이고, 현대 일본어의 회화에 근거한 축약현상의 통일적인 분석이 아직 되어 있지 않다(土岐 1975, 金 1983). 본 연구에서는 현대 일본어의 회화문에 나타난 축약형의 용례를 분류 정리하고¹⁾, 음운론적인 해석과 함께 그 음의 변화과정을 음향음성학적인 분석을 통하여 고찰한다.

분석용 데이터로서 선택한 회화자료는 『ちょっと一言』(아사히컬쳐센터, 1983), 일본 텔레비전 드라마 시나리오인 『のんちゃんの木』(1983, 8. TBS), 『風の中のあいつ』(1984, 5. 일본 TV), 『現代夫婦事情』(1984, 8. TBS), 『女の暦』(1984, 9. 후지TV), 『婦警さんは魔女』(1983, 2. TBS), 『天まであがれ』(1983, 8. 일본TV), 『若草學院物語』(1983, 11. 일본TV), 『ちょっといい夫婦』(1983, 12. TBS), 『オオネコプーにゃん』(1984, 4. 아사히TV), 『うさぎ, はねた!』(1984, 5. TBS), 『不良少女と呼ばれて』(1984, 6. TBS), 『太陽にほえろ』(1984, 7. 일본TV), 『離婚テキレイ』(1984, 11. TBS), 텔레비전 담화프로그램인 『徹子の部屋1』(1977. 아사히TV), 『徹子の部屋2』(1977. 아사히TV), 만화 『フスマランド4.5』(1987. 講談社), 『ドラエモン38』(1988. 小學館) 등 18 편의 회화자료를 선택하였다.

2. 일본어의 축약형

일본 텔레비전 드라마의 시나리오, 좌담 프로그램, 만화 등 18 편의 회화자료에서 관찰된 43 종의 축약현상을 표 1에 나타낸다.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のだ→~んだ」, 「~ている→~てる」, 「~では→~じゃ(~ては→~ちゃ)」, 「~てしまう→~ちゃう(~でしまう→~じゃう)」 등의 축약형은 18 편의 모든 자료에 나타난 것으로 보아 현대 일본어에 정착된 것으로 보고, 일본어 교육시 청해지도 항목의 하나로서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

1) 각 회화자료의 출연자의 속성(연령, 성별) 등에 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음을 밝혀둔다.

표 1. 일본어 회화문에 나타난 축약형

	ち1	婦	風	天	の	現	若	女	ち2	オ	う	不	太	離	フ	ド	徹1	徹2	합계
조사 の→ん	29	39	65	71	106	65	54	25	53	17		49	57	48	17	21	868	939	2583
~ている→~てる	7	15	57	32	55	38	32	25	29	14	60	11	26	39	41	41	443	445	1426
(~ていく→~てく)		(1)	(2)								71			(2)	(3)	(3)			(4)
~では→~じゃ	4	17	47	35	54	41	24	13	17	21	(3)	18	21	29	58	54	341	353	1173
~てしまう→~ちゃう	9	3	12	15	20	11	14	7	46	11	26	7	1	4	17	12	240	208	655
わたし→あたし					20			1		3	18			6	1		291	203	537
あなた→あんた		6		4	9		2	6	2	7	12	22	3	1	11		155	7	245
~ておく→~とく		2	7	6	4	5	1	7	5		10		1	4	3	6	8	9	73
(~ておる→~とる)		(1)						(1)			4			(2)				(23)	(27)
これは→こりゃ(それは→そりゃ、あれは→ありゃ)	5	1	5	2	7	2	1		4					1		3	29	31	91
~なければ→~なきゃ		1	6	3	3	3		7	1					2	2		21	32	81
~らない→~んない		1	1		2		1	2		1		2		1	6	3	31	20	74
~ない→~ねえ		12		4	2			3		1	3	5		2	2		28	1	60
(~さい→~せえ)		(1)		(1)				(1)				(1)							(4)
부정 ぬ→ん	1	3	5	1		1	1	9		5		6		3	2		4	15	57
~それで→~そいで											1		1				26	30	57
~ているのだ→~てんだ		2		1			1			1		1	4	1			9	12	37
~ているの→~てんの	1			1	1				1	2	5	2		4			13	11	37
~れば→~りゃ		4	4						3		1			3			15	3	35
~になる→~んなる											3						13	14	27
~てしまう→~ちまう		2			3			3	2	1		8	1		3		1	1	25
~しよう→~しょう						1											9	11	22
~るの→~んの			1		7						1	3					7	3	21
どこか→どっか			1			1									1		11	7	21
あたたかい→あったかい			2													1	4	8	19
(あたたまって→あったまって)											3							(1)	(1)
(あたためて→あっためて)																		(2)	(2)
いやだ→やだ					1				1	3				5			3	3	18
すみません→すいません				1	3		1	1			2			1	1		4	1	14
このあいだ→こないだ					1			2			1						6	1	11
それは→そらあ										1							4	4	9
~しておけば→~しときゃ				1										1			3		7
~には→~にゃ		1			2			1									1		5
~のうち→~んち			3														1		4
とりかえ→とっかえ						1								1			2		4
~りなさい→~んなさい			1													1			3
ことは→こたあ		1									1		1				1		3
いちにち→いちんち																	2	1	3
こんにちは→こんちは																	2	1	3
조사 は→あ									1								1		2
~てあげる→~たげる															1		1		2
~れない→~んない																	1		2
~るのだ→~んだ		1					1				1								2
~るから→~っから			1																1
ひきかえして→ひっかえして						1													1
それなら→そんなら																			1
ふみつける→ふんづける			1																1
なにしろ→なんしろ				1															1
축약형 종류수	7	17	17	15	19	13	12	14	14	15	18	12	10	19	15	11	37	30	7516

2.1 음운론적 해석

2.1.1 음소의 탈락

모음의 탈락

[i]의 탈락:

- | | |
|-------------------------------|--|
| (1) しょうがない。 | [ʃi:ganai] → [ʃo:ganai] |
| (2) ひっかえして。 | [çikikaefite] → [çikkaefite] |
| (3) いちんち。 | [itʃinʃi] → [itʃinʃi] |
| (4) なんしろ | [nanʃiro] → [nanʃiro] |
| (5) 何才におなりんなるの。 | [onarininaruno] → [onarininaruno] |
| (6) でも、 <u>なんか</u> お兄さまのお話です。 | [nanika] → [nanka] |
| (7) ふんづける。 | [ɸumʌtsuikeru] → [ɸumʌtsuikeru] |
| (8) 入んさい。 | [haiɾinasai] → ([haiɾnasai]) → [haiɾnasai] |
| (9) 服を <u>とっかえ</u> ひっかえしてたから。 | [toɾikae] → ([toɾkae]) → [toɾkae] |

(1)에서는 [ʃ]와 [j] 사이에서, (2)에서는 [k]와 [k] 사이에서, (3)에서는 [ɲ]와 [ʃ] 사이에서, (4)에서는 [ɲ]와 [ʃ] 사이에서, (5)에서는 [ɲ]와 [n] 사이에서, (6)에서는 [ɲ]와 [k] 사이에서, (7)에서는 [m]와 [ts]의 음성 환경에서 [i]가 탈락한 현상이다. (8)에서는 [ɾi] 음절의 [i]가 탈락하고 남은 [ɾ]가 후속자음 [n]의 동화를 받는다. (9)에서는 [ɾi] 음절의 [i]가 탈락하고 [ɾ]는 후속자음 [k]의 영향을 받는 역행동화현상이다.

이와 같이, [i]는 일본어 모음중에서 개구도가 가장 작은 모음이므로 탈락하는 경우가 많다.

[e]의 탈락:

- | | |
|-------------------------|--------------------------------------|
| (10) しめときますか。 | [ʃimeteokimasu] → [ʃimetokimasu] |
| (11) したげる。 | [ʃiteageru] → [ʃitageru] |
| (12) 疲れ <u>ちまう</u> んだよ。 | [tsukareteɕimau] → [tsukareɕimau] |
| (13) そんなら | [soɾenara] → ([soɾnara]) → [soɾnara] |

(10)에서는 [te]와 [o]가 연결하고, (11)에서는 [te]와 [a]가 연결하여 각각 모음 [e]가 탈락하는 현상이다. 이처럼 모음과 모음이 충돌하는 경우, 두 개의 모음 중에서 하나의 모음이 탈락되기 쉬운데 대체로 선행모음이 탈락된다.

(12)에서는 [te] 음절의 [e]가 탈락하고 남은 자음 [t]는 후속음절 [ɕi]와 융합되어 파찰음화가 되는 현상이다.

(13)에서는 [re] 음절의 [e]가 탈락하고 [ɾ]음이 후속자음 [n]에 동화되어 비음화되는 현상이다.

[a]의 탈락:

- | | |
|------------|-----------------------|
| (14) あったかい | [ataakai] → [attakai] |
|------------|-----------------------|

- (15) あなたも頑張ってくれよ。 [anata]→[anta]
 (16) わかんない [wakaranai]→([wakamai])→[wakannai]

(14) [atata]의 음성 환경에서 [t]와 [t] 사이의 [a]가 탈락하는 현상이다. 1·2·3 음절의 모음이 [a]이고 2·3 음절의 자음이 같은 무성자음인 경우, 그 무성자음 사이에 끼인 모음은 무성음화 또는 탈락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15) [anata]의 환경에서 [n]과 [t] 사이의 모음 [a]가 탈락한 현상이다. (14), (15)와 같이 조음점이 인접해 있는 자음 사이에서 모음은 탈락하는 경우가 많다.

(16) [ra] 음절의 모음 [a]가 탈락하고 [r]음이 후속자음 [n]의 동화를 받아 비음화된다. (14)~(16)과 같이 [a]의 탈락은 /a/행 음절과 /a/행 음절 사이에서만 탈락한다.

[o]의 탈락:

- (17) こないだ買ったの [konoaida]→[konaida]
 (18) 君はどっかの學校へ行ってるんです。 [dokoka]→[dokka]
 (19-1) そこどころ [sokontokoro]→[sokontokoro]
 (19-2) 思うんなら [omouonara]→[omounnara]
 (19-3) するんですか。 [surunodeu]→[surunodeu]

(17) [konoaida]에서 조사 [no]와 [a] 음절이 연결하여 모음충돌회피현상에 의해 반폐모음 [o]가 개모음 [a]로 흡수되어 [konaida]로 실현되는 현상이다.

(18) 두 개의 무성자음 [k]와 [k] 사이에 끼어 있는 [o]의 탈락현상이다.

(19-1)은 [n]과 [t] 사이에서, (19-2)는 [n]과 [n] 사이에서, (19-3)은 [n]과 [d] 사이에서 [o]가 탈락하는 현상이다. (19-1)~(19-3)은 조사 「の」가 「ん」이 되는 현상으로, 조음위치가 인접해 있는 두 개의 자음 사이에 있는 모음은 탈락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w]의 탈락:

- (20) 全部先生にあずけっから [azuikeruukara]→([azuikerukara])→[azuikekkara]
 (21) そうすっとみんないたわけだ。 [suruuto]→([suruto])→[suutto]
 (22) 何人くんの。 [kuuruno]→([kuuno])→[kunno]

(20) [ruw] 음절의 모음 [w]가 탈락하고 자음 [r]가 후속자음 [k]에 역행동화된 현상이다.

(21) [ruw] 음절의 모음 [w]가 탈락하고, 남은 자음 [r]가 후속자음[t]에 역행동화된 현상이다.

(22) [ruw] 음절의 모음 [w]가 탈락하여 자음 [r]가 후속자음 [n]의 동화를 받는 현상이다. 이와 같이, [ra] 행음에 연속하는 음절의 첫 자음이 [k], [t], [n]인 경우 후속음의 동화를 받는 다.

반모음의 탈락

[w]의 탈락:

- (23) あたしのどこが氣にいらないのですか。 [watafi]→[atafi]
 (24) それあ [sorewa]→[sorea]
 (25) 大丈夫よ。死にゃしませんから。 [jiniwa]→([jinia])→[jina]
 (26) そりゃいいな [sorewa]→[sorea]→[sorja]
 (27-1) ものじゃない [monodewa]→([monodea])→[mono3a]
 (27-2) 聲を出しちゃいけない。 [dafitewa]→([dafitea])→[dafifa]

(23), (24) 이중모음 [wa]를 계속해서 발음해 보면 [a]음이 분명하게 지속되어 결국 [w]는 [a]로 흡수되어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wa]의 [w]가 모두 탈락하는 것만은 아니다. 예를 들면, [wakai](若い)와 [akai](赤い)처럼 [w]의 탈락으로 인해 단어의 의미가 혼동되는 경우 및 [awanai](會わない)처럼 동사활용의 경우에 한해서 [w]는 탈락하지 않는다.

(25) 반모음 [w]가 탈락하여 [jinia]가 되고, 두 개의 모음 [i], [a]는 다시 이중모음 [ja]가 되고, 결국 [jina]로 실현된다.

(26) [sorewa]의 반모음 [w]가 탈락하여 [sorea]가 되고, [sorea]의 [e], [a]는 이중모음[ja]가 되어 결국 [sorja]로 실현된다.

(27-1) [dewa]에서 [e]와 [a] 사이의 [w]가 탈락하여 [dea]가 되고, [ea]는 다시 이중모음 [ja]가 되어 [dja]가 된다. [dja]의 [d]는 뒤에 오는 경구개 반모음 [j]의 영향을 받아 [3]로 실현된다.

(27-2) [tewa]의 [e]와 [a]사이에서 [w]가 탈락하여 [tea]가 된 다음 [ea]는 다시 이중모음 [ja]가 되어 [tja]가 된다. [tja]의 [t]는 뒤에 오는 경구개 반모음 [j]의 영향을 받아 [ʃ]로 실현되는데 이는 구개음화현상이라 할 수 있다.

(24)~(27-2)와 같이, 조사 [wa] 앞에서 음절의 단축이 꽤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음의 탈락

[m]의 탈락:

- (28) 本まにすいません。 [sumimasen]→[suimasen]

[sumimasen]의 2 음절 초성인 [m]이 탈락한 현상이다. [mima]를 발음하기 위해서는 연결어 두 입술을 다물어야만 하므로 발음 간소화 작용으로 인해 앞의 [m]가 탈락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특히 [mi]가 [i]로 발음되는 현상은 [m]를 포함하는 음절이 중복해서 나오는 경우에 탈락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b]의 탈락:

- (29) 放っておかなけりゃどうなさるの。 [nakereba]→([nakerea])→[nakerja]

[reba]에서 [b]가 탈락하여 [rea]가 된다. [rea]의 [e], [a]는 다시 이중모음 [ja]가 되어 결국 [rja]로 실현된다.

2.1.2 음절의 탈락

[i]의 탈락:

- (30) 起きてる。 [okiteiru]→[okiteru]
 (31) とにかく連れてく。 [tsureteiku]→[tsureteku]
 (32) あら、やだ。 [ijada]→[jada]

(30), (31) [teiru], [teiku]의 환경에서 선행음절 [te]의 모음 [e]와 후속음절 [i]가 연결하는 경우, 폐모음 [i]는 반폐모음 [e]로 흡수되는 현상이다. 이와 같이 [i]가 [e] 뒤에 오면, 이들 두 모음이 동일어에 속해 있지 않아도 [i]는 [e]로 흡수되는 경우가 있다.

(32) [i]는 개구도가 작은 모음이므로 어두에서 탈락하기 쉽다.

[ni]의 탈락:

- (33) こんちは、どうも [konnifiwa]→[kontfiwa]

[ni]의 [n]는 구개성 자음으로서 [ni] 음절이 탈락되어도 뒤에 오는 [ʃ] 자음이 구개음이므로 [ni] 음절의 탈락현상이 더욱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된다.

2.1.3 융합

- (34-1) あるからかなわねえ [nai]→[ne:]
 (34-2) うるせえ [urusai]→[uruse:]

개모음 [a]와 폐모음 [i]가 연결하여 반폐모음 [e]로 되는 현상이다. 모음충돌회피현상으로 말미암아 두 개의 음이 상호 작용하여 새로운 음을 형성하는 상호동화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 (35) 何言ってんのよ。 [itteirumo]→[itterumo]→([ittegno])→[ittenno]
 (36) 何言ってんだ。 [itteirumoda]→[itterumoda]→[itterunda]→([itternda])→[ittennda]

(35) [teirumo]에서 모음음절 [i]가 탈락하여 [terumo]가 된다. 여기에서 [ru] 음절의 모음 [u]가 탈락하고 남은 자음 [r]는 후속자음 [n]에 동화되어 비음화된다.

(36) [teirumoda]에서 모음음절 [i]가 탈락하여 [terumoda]가 되고, 다시 조음위치가 같은 [n]와 [d] 사이에서 [o]가 탈락하여 [terunda]가 된다. [terunda]에서 [ru] 음절의 [u]가 탈락함과 동시에 [r] 음은 후속자음 [n]의 동화를 받아 [tenda]로 실현되는 현상이다.

- (379-1) 飲んじゃった。 [nondefimatta]→[nonzimatta]→([nonziatta])→[nonzatta]

(379-2) 會っちゃった。 [attefimatta]→[atfimatta]→([atfiatta])→[atfatta]

(37-1) [defimatta]에서 [e]가 탈락하여 [ɟimatta]가 된 다음 다시 어중의 [m]가 탈락되어 [ɟiatta]가 된다. 여기에서 [ɟiatta]의 [ia]는 이중모음화되어 [ɟatta]가 되는 것이다.

(37-2) [tefimatta]에서 [e]가 탈락하여 [ɸimatta]가 된 다음 다시 어중의 [m]가 탈락되어 [ɸiatta]가 된다. 여기에서 [ɸiatta]의 [ia]는 이중모음화되어 [ɸatta]로 실현되는 것이다.

(38) 行かなきゃいけない。 [nakereba]→([nakerea])→[nakerja]→[nakja]

[nakereba]에서 [b]가 탈락하여 [nakerea]가 된 다음 [ea]는 이중모음화하여 [nakerja]가 된다. [nakerja]의 [k]와 [j] 사이에서 [e]와 [r]이 탈락하면서 결국 [nakja]로 되는 것이다.

(39) こがしときゃごまかせる。

[kogafiteokeba]→[kogafitokeba]→([kogafitokea])→[kogafitoka]

[jiteokeba]에서 [te]와 [o]가 연결할 때 [e]가 탈락하고 [jitokeba]가 된다. 다시 [jitokeba]에서 [b]가 탈락하여 [jitokea]가 된 다음 [ea]는 이중모음화하여 결국 [jitokja]가 되는 것이다.

(40) あたしんちの階へ運んで看病してくれ。 [atafinoutfi]→([atafinutfi])→[atafintfi]

[atafinoutfi]의 경우, 조사 [no]와 [u]가 연결하여 [o]가 탈락되어 [atafinutfi]가 된다. 이것은 다시 조음위치가 같은 자음 [n]와 [ɸ] 사이에서 [u]가 탈락하여 [atafintfi]로 실현되는 현상이다.

(41) 不細工な面してやがるこたあ間違いねえ。 [kotowa]→([kotoa])→[kota:]

이중모음 [wa]에서 반모음 [w]가 탈락하여 [kotoa]가 되며, 다시 [kotoa]에서 [to]와 [a]가 연결하여 [o]가 탈락되고 결국 [kota]로 실현된다. 이것은 반폐모음 [o]가 개모음 [a]로 흡수되는 현상이다.

(42) そらあ、高いですね。 [sorewa]→[sorea]→[sora:]

이중모음 [wa]에서 반모음 [w]가 탈락하여 [sorea]가 된다. 다시 [sorea]에서 [re]와 [a]가 연결하여 반폐모음 [e]가 개모음 [a]로 흡수되어 [sora:]로 실현되는 현상이다.

(43) そいで、それを配るんだけど。 [sorede]→[soede]→[soide]

[r]와 [d]는 조음방법이 비슷하여 [d]를 포함하는 음절 앞에서 [r]음이 탈락하고 [soede]가

된다. 이때 [e]는 [i]로 재현되어 [soide]로 실현되는 현상이다.

2.2 음향음성학적 분석

축약 전과 축약 후의 지속시간 상의 특징을 조사하기 위해, 축약 후에 음절수가 줄어드는 경우와 줄어들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음성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곳의 지속시간을 측정하였다. 동경출신 화자의 발화를 녹음하여 음성신호고속처리시스템(音聲録聞見; 今川博・桐谷茂)을 사용하였다.

2.2.1 모음의 탈락

모음탈락으로 인해 음절수가 줄어드는 경우의 지속시간의 변화를 표 2에, 음절수가 줄지 않는 경우의 지속시간의 변화를 표 3에 나타낸다.

표 2를 보면, 음절수는 1 음절 감소하여 [i], [e] 탈락의 경우는 1 음절 길이만큼 짧아짐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o] 탈락의 경우, 축약 후의 지속시간은 축약 전의 지속시간의 1 음절 길이의 반 정도가 짧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을 보면, 모음이 탈락되어도 음절수가 줄어들지 않는 경우는 축약 전과 축약 후의 지속시간상에는 큰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표 2. 음절수가 줄어드는 경우의 모음의 탈락 (ms)

탈락	축약 전		축약 후	
[i]	しょうがない [ʃiio:ganai]	370	しょうがない [ʃo:ganai]	245
[e]	しめておきます [ʃimeteokimasu]	229	しめときますか [ʃimetokimasu]	125
	のんでしまった [nondeʃimatta]	232	のんじまった [nonʒimatta]	147
	してあげる [ʃiteageru]	258	したげる [ʃitageru]	144
[o]	このあいだ [konoaida]	228	こないだ [konaida]	150

표 3. 음절수가 줄어들지 않는 경우의 모음의 탈락 (ms)

탈락	축약 전		축약 후	
[i]	ひきかえして [çikikaefite]	395	ひっかえして [çikkaefite]	330
	いちにち [içiniçi]	158	いちんち [içinçi]	159
	はいりなさい [hairinasai]	302	はいんなさい [hainnasai]	296
[e]	それなら [sorenara]	351	そんなら [sonnara]	359
[a]	あたたかい [atatakai]	315	あったかい [attakai]	294
	あなた [anata]	282	あんた [anta]	272
	わからない [wakanai]	202	わかんない [wakannai]	194
[o]	どこか [dokoka]	357	どっか [dokka]	327
	そこどころ [sokonotokoro]	109	そこんところ [sokontokoro]	85
	するのです [surunodeu]	125	するんです [surunudeu]	90
[u]	あずけるから [azukerukara]	325	あずけっから [azukekkara]	320
	くるの [kuruno]	402	くんの [kunno]	389

2.2.2 반모음의 탈락

반모음이 탈락함으로써 음절수가 줄어드는 경우의 지속시간을 표 4에 나타내고, 음절수가 줄어들지 않는 경우의 지속시간을 표 5에 나타낸다.

표 4에서 [w]의 탈락으로 인해 음절수가 감소하는 경우는 축약 후의 지속시간에 있어서 축약 전보다 1 음절 길이의 절반정도 짧아졌다. 표 5에서와 같이, 어두에서의 [w] 탈락의 경우, 축약 후의 지속시간은 축약 전보다 짧아지는데 비해, 어중에서의 탈락의 경우에 있어서는 축약 후의 지속시간이 축약 전보다 오히려 길어짐을 알 수 있다.

표 4. 음절수가 줄어드는 경우의 반모음의 탈락 (ms)

탈락	축약 전		축약 후	
[w]	死にはしません [ʃiɲiwa]	275	死にゃしません [ʃiɲa]	204
	あれは [arewa]	300	ありゃ [aria]	245
	これでは [koredeɰa]	260	これじゃ [koreɟa]	205

표 5. 음절수가 줄어들지 않는 경우의 반모음의 탈락 (ms)

탈락	축약 전		축약 후	
[w]	わたし [wataɟi]	322	あたし [ataɟi]	280
	それは [soreɰa]	240	それあ [sorea]	273

2.2.3 자음의 탈락

음절수가 줄어드는 경우를 표 6에, 음절수가 줄어들지 않는 경우를 표 7에 나타낸다.

표 6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b]의 탈락으로 인해 축약 후의 지속시간은 축약 전보다 짧아지기는 하지만 1 음절 길이의 8 할 정도의 길이가 줄어든다. 표 7에서는 축약 후의 음절수는 줄어들지 않지만 지속시간은 30 ms 정도 줄어들고 있다.

표 6. 음절수가 줄어드는 경우의 자음의 탈락 (ms)

탈락	축약 전		축약 후	
[b]	なければ [nakereba]	275	なけりゃ [nakeria]	155

표 7. 음절수가 줄어들지 않는 경우의 자음의 탈락 (ms)

탈락	축약 전		축약 후	
[m]	すみません [sumimasen]	687	すいません [suimasen]	652

2.2.4 음절의 탈락

[i], [ɲi] 음절의 탈락으로 인해 음절수가 감소하며, 축약 전과 축약 후의 지속시간을 표 8에 나타낸다.

전체적으로 축약 후의 지속시간은 축약 전보다 1 음절 길이만큼 짧아지는데, 어두에서의

음절 탈락인 경우는 축약 전보다 1 음절 길이의 7 할 정도 짧아졌다.

표 8. 음절수가 줄어드는 경우의 음절탈락 (ms)

탈락	축약 전		축약 후	
[i]	おきている [okiteiru]	225	おきてる [okiteru]	130
	つれていく [sureteiku]	205	つれてく [sureteku]	115
	いやだ [iyada]	230	やだ [yada]	157
[ni]	こんにちは [konnitwiwa]	194	こんちは [kontfiwa]	85

2.2.5 융합

축약 전과 축약 후에 있어서 음절수가 줄어드는 경우의 지속시간의 변화를 표 9에, 음절수가 줄어들지 않는 경우의 지속시간의 변화를 표 10에 나타낸다.

표 9를 보면, 「なにいっているのだ[naniitteirumoda]→なにいってんだ[naniittenda]」의 경우, 음절수가 2 음절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시간에는 큰 차이가 없다. 이것은 「いるの」이 여러 단계를 거쳐 「ん[n]」으로 실현되면서 「ん[n]」이 길게 발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0을 보면, 모음융합으로 음절수는 줄어들지 않지만, 지속시간에 있어서는 축약 후가 축약 전보다 20 ms 정도 짧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9. 음절수가 줄어드는 경우의 융합 (ms)

축약 전		축약 후	
なにいっているのだ [naniitteirumoda]	995	なにいってんだ [naniittenda]	985
あってしまった [attejimatta]	427	あっちゃった [atfatta]	247
なければ [nakereba]	395	なきゃ [nakia]	170

표 10. 음절수가 줄어들지 않는 경우의 융합 (ms)

축약 전		축약 후	
うるさい [urusai]	219	うるせえ [uruse:]	204
それは [sorewa]	237	そらあ [sora:]	215
それで [sorede]	112	そいで [soide]	80

3. 결론

일본 텔레비전 드라마의 시나리오, 좌담 프로그램, 만화 등 18 종류의 대화문에 나타난 축약형의 용례를 분류·정리하여 그 음의 변화과정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43 종의 음운축약현상이 관찰되었는데, 그 가운데 ~[noda]→~[nda], ~[teiru]→~[teru], ~[dewa]→~[za], ~[tejimaui]→~[fau] 등의 축약형은 모든 조사 자료에 나타난 것으로 보아 현대 일본어에 정

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일본어 교육 현장에서 축약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리라 본다. 이들 축약형에는 음소와 음절의 탈락 및 융합현상이 보인다.

- ① 모음의 탈락 : 일본어의 5개의 모음(/i/, /e/, /a/, /o/, /u/) 모두가 탈락한다. 모음 충돌 회피현상에 의해 개구도가 작은 모음이 개구도가 큰 모음쪽으로 흡수되어 가는 현상 및 조음위치가 인접해 있는 두 개의 자음 사이에 끼어 있는 모음은 탈락하기 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流子音으로 시작되는 음절(/ra/, /ri/, /ru/, /re/)의 경우에는 모음탈락과 동시에 /r/음은 후속자음의 영향을 받는 역행동화 현상 및 치경음이 전설모음 또는 경구개 모음의 영향을 받아 경구개음으로 실현되는 구개음화 현상이 일본어에도 보인다.
- ② 자음의 탈락 : /m/, /b/의 탈락현상이 보인다.
- ③ 반모음의 탈락 : 어두에서 /w/의 탈락이 보이며, 어중에서는 /w/의 탈락 후 남은 두 개의 단모음이 이중모음화되는 현상이 보인다.
- ④ 음절의 탈락 : /i/, /ni/만의 탈락현상이 보인다.
- ⑤ 융합 : 인접해 있는 두 개의 음이 모음충돌회피 현상에 의해 다른 음으로 실현되는 현상 및 여러 단계의 탈락과 융합과정을 거쳐야만 축약되기 전의 형태로 복원 가능한 현상이 나타난다.

축약 전과 축약 후의 음의 지속시간의 특징에 있어서 살펴본 바, 축약된 후 음절수가 줄어들지 않는 경우는 실제 지속시간에 있어서도 거의 차이가 없었지만, 모음탈락으로 인한 撥音(ん)化의 경우는 축약 후의 지속시간이 축약 전보다 오히려 더 길어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음절수가 줄어드는 경우는, 축약 후의 지속시간이 반드시 축약 전보다 1 음절 길이만큼 짧아진다고 할 수 없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어의 축약현상은 조음음성학적으로는 탈락, 융합, 동화 등이지만, 축약 현상이 일어나는 환경을 형태음운론적으로 보면, 형태소 경계에 있는 것과 어휘 내에 있는 것으로 나뉘어진다. 그러나 빈도가 높은 축약현상은 대부분이 복합동사구나 명사구 내의 형태소 경계에서 관찰되고, 통사·형태정보로부터 축약규칙이 작용된다고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 김조웅. 1983. “일본어 교육과 축약형”. 인하공진논문 8집.
 岸田武夫. 1984. 國語音韻變化の研究. 武藏野書院.
 日本音聲學會. 1976. 音聲學大事典. 三修社.
 崔英淑. 1999. “日本語と韓國語の韻律に現れる音韻・統語・談話現象の音響音聲學的研究”. 東北大學 박사논문(일본).
 土岐哲. 1975. “教養番組に現れた縮約形”. 日本語教育, 28.

접수일자: 2001. 10. 19.

게재결정: 2001. 11. 20.

▲ 최영숙

충북 청원군 강내면 산 7번지 (우: 363-791)

한국교원대학교 중등교원양성소

Tel: +82-43-230-3978 (O) Fax: +82-43-233-6679

E-mail: usagichoi@cc.knue.ac.kr